

# 서울의 실패

성경 사무엘상 13:8-15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말씀만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마음에 조급함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은혜의 찬양 223장)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겐 소망 있네 내겐 미래 있네 주 계획하시네 내 미래를 내 소망을  
신실한 주 말씀 능력의 주 말씀 날 구원하시네 나는 믿네 확신하네



###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송가 546장)

-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성령 인도 하는대로 행하며  
주님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 말씀 읽기 사무엘상 13:8-15

-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 10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 11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육백 명 가량이라

## 본문 배경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을 신정정치의 대리인으로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꺾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지만 때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사울의 왕권이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 말씀 관찰

1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요? (9절)

**답**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해설** 촉각을 닦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므미스에 진을 쳤는데 그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굴과 수풀과 바위틈에 숨었습니다(6절).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레 동안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2 사울의 행동을 본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13절)

**답**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해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사울은 백성이 더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성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배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수단화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향해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13절).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삶의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 말씀 적용

1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적이 있나요? 그때 상황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가족과 진솔하게 나눠 보세요.

